

한국 뮤지컬 음악 교육의 나아갈 방향, 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Direction of Korean Musical Education, focused on the University Education

이은혜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Eun-Hye Lee(kornbef@naver.com)

요약

한국 뮤지컬 산업의 급성장으로 그에 따른 전문 인력 배출의 필요성과 교육 기관의 양적, 질적 증대가 대두 되고 있다. 예술 교육의 커리큘럼은 학교 교육을 통해 예술가의 자기성장과 자아실현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술이 기술만 갖고 해결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이론, 교양 과목의 통합 교육을 통해 자신이 표현 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전달하고 소통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뮤지컬 음악 교육 또한 근시안 적인 유행이나 순간의 대학 경쟁률을 높이는 교과목들의 나열 보다는 깊이 있는 배우를 배출하기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교육을 받은 후 사회에 나가는 것이 결코 뒤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깊이 있는 배우로서 성장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신뢰를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마다 대학 입시와 커리큘럼, 졸업 후 활동 방안에 대해 연계성을 갖고 올바른 비전과 관통선을 제시하는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좋은 배우들의 배출로 대학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며 더 나아가 뮤지컬 산업의 질적 향상도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중심어 : | 뮤지컬 | 대학 음악교육 | 커리큘럼 | 예술교육 |

Abstract

Due to the burgeoning Korean musical industry, the needs of professional man power as well as the quality and quantity increase in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on the rise. The curriculum for art education comprises through school education programs in which embody the artists' self-growth and self-realization. The field of arts simply could not be executed with only techniques but through the theory and educational course, the artist is able to clearly express and communicate their genuine desires. Therefore, Korean musical education could not conform to shortsighted trends or be used as an instant tool for increasing competitiveness among universities but make an effort to provide good quality curriculum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talented actors. Furthermore, the curriculums should build a sincere trust and give confidence in which receiving a cultural education before choosing a career path is not getting behind ahead of becoming an actor with practical training and knowledge. In order to do so, it is necessary for each university to have more systematical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structure that enable students to build promising future even after graduation through more effective educational courses and strong network. As a result, the competitiveness of the university would rise due to producing talented actors and the quality of musical industry would further improve as well.

■ keyword : | Musical | University Music Education | Curriculum | Art Education |

1. 서론

한국의 대학 뮤지컬 음악 교육의 경쟁력과 커리큘럼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 하고자 할 때 교수의 입장뿐만 아니라 대학과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시작 하게 되었다. 뮤지컬 산업의 급성장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전문 인력 배출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1]. 그에 따라 교육 기관의 양적, 질적 증대 또한 피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예술 교육이 대학 범주에 포함 되면서 단순한 기술의 습득이 아닌 전인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전인 교육이란 학생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성장과 함께 창의성과 인성, 사회성의 발달 등 사람을 이루는 여러 측면들이 균등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뮤지컬 교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음악성 향상, 종합예술의 생활화 등의 일반적인 목표를 수립 한 후 학과 특성에 맞는 과목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교육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예술 교육의 커리큘럼은 학교 교육을 통해 예술가의 자기 성장과 자아실현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곧 자신이 표현 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전달하고 소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 가 사려 된다. 한국 대학 연극, 뮤지컬 관련 학과는 소수의 연출 및 스텝 양성과 대부분은 배우를 만들어내는 교과과정을 제공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학년의 경우 일반교양 관련 교과목들과 기초 테크닉, 이론을 익히고 고학년이 될 수록 전공 심화를 통하여 대중과 소통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 한국의 대학 교육 시스템은 미국의 경우와 흡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뮤지컬 관련 전공 학과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미 100여 년 전 부터 뮤지컬 공연을 해오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역량 있는 스텝과 배우들이 포진 하고 있다 [3]. 이로 인한 발달로 50-60년 먼저 뮤지컬 과목 커리큘럼이 정립 된 미국 뮤지컬 전공의 과목들은 한국에 비해 음악 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상당히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과목들을 제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뮤지컬 이라는 장르 자체가 음악이 없다면 이루어 질수 없으며 큰 특징인 음악분야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

다. 한국 대학의 뮤지컬 음악 커리큘럼에서도 유용한 교과목들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도 볼 수 있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자 한다. 한국 대학의 뮤지컬 음악 교육 또한 근시안 적인 유행이나 순간의 대학 경쟁률을 높이는 교과목들의 나열 보다는 깊이 있는 배움을 배출하기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마다 대학입시와 대학 커리큘럼 및 졸업 후 활동 방안에 대해 올바른 비전과 관통선을 갖는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초, 중, 고등학교 에서 뮤지컬 방과 후 활동이나 영어 뮤지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그에 따른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4]. 반면 대학 뮤지컬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 대학의 뮤지컬 음악 교과목 커리큘럼의 선행 연구와 이론적 고찰이 미비한 상태이며 이제 시작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5]. 이번 연구를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올바른 커리큘럼을 운영하는데 다소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영국과 미국의 경우 뮤지컬 교육 모두 한국 보다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영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았을 때 영국 대학은 한국 대학과는 다른 3년제를 기본으로 한 커리큘럼이 운영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한국 대학의 4년제 커리큘럼과 유사한 미국의 표본이 영국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미국의 커리큘럼을 비교 대상 그룹으로 제한하였다[6]. 아래의 내용에서는 대학 뮤지컬 음악교육 교과목을 위주로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 각 5개 대학의 커리큘럼을 표본으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첫 번째로는 미국 대학 뮤지컬 음악 교과목을 분석함으로써 우수한 과목들을 파악하였고, 두 번째로 한국 대학의 뮤지컬 교과목을 비교 분석 하여 한국 대학 뮤지컬 음악 교과목의 장단점을 분석 하였다[7]. 마지막으로 올바른 교과목 제시와 더불어 대학 졸업 후 활동과의 연계를 위해 어떠한 교과목 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 교육 실정에 적합하고 대학별 경쟁력을 강화 하며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교과목 개발을 모색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본 론

한국 대학에서의 뮤지컬 교육은 일반적으로 연기나 무용 전공 관련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뮤지컬 과목 수업들과 뮤지컬 전공을 따로 개설해 뮤지컬과 라는 명칭으로 분류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예술 관련 학과만 모여 있는 콘서바토리(Conservatory)와 종합 대학이 있는데 각각 뮤지컬 전공이라는 전공 학과의 이름은 같지만 학교의 시스템에 따라 과목 개설의 종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뮤지컬 전공 커리큘럼은 미국의 콘서바토리과 종합 대학의 것을 혼합한 형식을 보여 준다. 이 중 종합 대학은 연기 전공 관련 학과들과 조금 더 비슷한 양상을 띠고 볼 수 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5개 콘서바토리과 종합대학, 그리고 한국의 5개 종합대학의 연기전공 내 뮤지컬 교과목과 뮤지컬 전공의 음악 교과목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먼저 미국의 대학 뮤지컬 관련 음악 교과목들을 살펴보자.

1. 한국과 미국의 뮤지컬 음악 교과목 비교 분석

1.1 미국 대학 뮤지컬 전공 음악 교과목

아래 [표 1]은 2012년 미국의 뮤지컬 전공 상위 학교 중 5학교(뉴욕대학교, 보스턴 콘서바토리, 오클라호마 시립 대학교, 미시간 대학교, 쉐시네티 대학교)의 음악 교과목들을 나열 한 것이다. 커리큘럼의 신빙성을 두기 위하여 미국 뮤지컬 학과 중 상의 20위 안에 드는 학교와 음악과 이론이 잘 조합 되어 있는 학교를 선별 하여 범위를 정하였다[8].

표 1. 미국 대학 뮤지컬 음악 주요 교과목

	음악	음악이론	공연실기
A.뉴욕대학교 (NYU)	개인레슨1,7 보컬코칭 피아노1,4	시창청음1,4 음악이론1,4 뮤지컬역사 1,2 뮤지컬장면 곡 분석	뮤지컬제작 실기 쇼케이스 오디션 3,4학년 리사이틀
B.보스턴콘서바토리	개인레슨1,8 보컬코칭 피아노1,2	시창청음1,2 음악이론1,2 장면분석1,2	뮤지컬레퍼토리 1,2 쇼케이스 오디션 리사이틀
C.미시간대학교 (Umich)	개인레슨1,8 피아노1,2	음악이론 시창청음 뮤지컬역사 1,2 뮤지컬입문 1,2	뮤지컬워크숍1,2 쇼케이스 오디션 리사이틀

D.쉐시네티대학교 (Uc)	개인레슨 보컬코칭 합창	음악이론 시창청음 뮤지컬역사와 문학1,2	리허설, 공연 신입생쇼케이스, 4학년쇼케이스
E.오클라호마시립대학교	개인레슨1,8 피아노1,4	음악이론1,4 시창청음1,4 뮤지컬 문학 세미나	오페라뮤지컬워크숍 뮤지컬워크숍 3,4학년 리사이틀

위의 [표 1]은 콘서바토리과 종합 대학 뮤지컬 음악 교과목 들을 제시한 것 이다. 우선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유형 A 뉴욕 대학교는 19세기 중반 음악 이론 학위를 시발로 1960년대 중반 이후 뮤지컬 관련 학위를 갖고 체계 있는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다[9]. 뉴욕 대학교 뮤지컬 음악 교과목과 노래 수업의 우수성은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을 통해 교수들이 한국에 초빙되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더욱 회자 되고 있으며 최근 발간된 책을 통해서도 이야기 되어 지고 있다[10]. 유형 A는 종합 대학 중 음악에 더욱 중점을 두는 학교이며 음악에 66학점을 배정하고 음악 기초 수업을 심화 하여 학생들의 음악 기본 이론을 다지고 노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입시에서 조차 시창 시험을 요구하며 입학부터 졸업 까지 음악 교육에 우선을 두고 커리큘럼이 진행된다. 또한 개인 레슨은 매 학기 진행되며 개인 레슨 이외에 보컬 코칭이라 하여 음악 감독 개념의 교수에게 발성이외에 음악을 표현하는 법 등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개인 연습실이나 강사의 확보 등의 문제로 유형 A처럼 모든 음악 기초 과목을 오랫동안 제공 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두 번째로 유형 B는 보스턴 콘서바토리로 음악, 연기, 무용에 골고루 학점이 배분되어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9세기말 음악 학교를 시작으로 1950년도 중반에 뮤지컬 관련 학위가 생기면서 체계 있는 교과목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11]. 무엇보다 연기와 무용 과목이 과목별로 4학기 동안 수강할 수 있도록 세분화 되어 있어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음악 교과목은 33학점으로 다른 무용, 연기, 교양 과목과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개인 노래 레슨은 30분씩으로 한정 되어 있었지만 8학기 동안 수업 하며 본인이 수업료를 더 내면 한 시간 레슨이 가능하기도 하다. 유형 C의 경우 음악, 음악 이론, 공연실기 부분의 과목도 다른 학교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졸업 요건으로 피아노 테스트와 3, 4학

년 개인 리사이틀 과목은 실력 평가 레벨을 정하여 통하지 못하면 유급을 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노래 실력 충분히 향상되지 못하면 졸업이 어려우므로 학생들이 음악 수업을 간과하지 못 하도록 강하게 명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유형 D 는 지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쇼케이스를 제공하므로 써 많은 연출가와 캐스팅 디렉터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학교로 많은 학생들이 뉴욕에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유형 E는 유형 A인 뉴욕대학교와 비슷한 구성임을 알 수 있는데 노래 과목을 중시하고 클래식 성악과 뮤지컬을 함께 배우게 함으로써 노래를 다양한 창법으로 배울 수 있게 한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 뮤지컬 배우 중 크리스틴 체노웨스는 이 학교의 뮤지컬 전공 학사와 오페라 전공 석사 출신으로 진성과 두성 창법을 모두 구사하면서 토니상 수상과 함께 다양한 역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교과목들을 분석해 보면 여러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노래 과목을 중시하며 이론 및 졸업 후 까지 책임지는 교과목들을 제시하는 것 알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전반적으로 영역별 과목을 세분화하고 심층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학제 간 조화를 이루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12]. 다음은 미국의 콘서트바토리와 종합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뮤지컬 음악 교과목들을 정리해 보았다.

표 2. 미국 대학 뮤지컬 전공 주요 음악 교과목

	저학년	고학년
음악	개인레슨 보컬 코칭, 피아노	개인레슨 오디션, 쇼케이스
음악 이론	시창청음 음악 이론	뮤지컬 역사 뮤지컬 음악 분석
공연 실기	뮤지컬 레퍼토리 뮤지컬 앙상블	뮤지컬 제작 실기 3학년 리사이틀 4학년 졸업 리사이틀

주목 할 만 한 점은 시창, 청음, 음악 이론을 1, 2학년 2년 동안 4학기를 진행하는 대학이 대부분 이라는 것이다. 노래 개인 레슨은 5개 학교 모두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 까지 4년간 8학기 동안 1시간씩 매주 레슨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아노 교육도 두 학기 정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였고 철저한 뮤지컬 곡 분석

을 통하여 깊이 있는 곡 표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음악 수업에서는 절대로 MR 반주라는 것은 사용 되지 않으며 전문 피아니스트가 수업 반주를 해준다. 여기에서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반주와 악보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음감이 좋아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육 목표에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음악 전반에 걸친 기초부터 철저히 교육하는 이러한 음악 중심의 교과목은 개인 공연으로도 이어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진급 할 때 단독 콘서트 준비와 발표를 통해 이론적 준비 능력과 실기 능력을 미리 테스트하고 통과하지 못 할 경우 유급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욱 이론과 실기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4학년 졸업 공연은 뮤지컬 제작실기 작품 발표와는 별도로 모든 학생이 다 연주해야 하며 학교마다 약간의 구성은 다르지만 마치 클래식 성악과처럼 개인별로 발표를 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오디션 테크닉과 쇼 케이스를 통해 미리 학교에서 오디션을 경험하게 하여 현장과의 괴리감을 줄여준다. 위의 커리큘럼으로 입학시험에서 부터 중시된 음악 기초 교육과 뮤지컬 관련 교과목 대한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동시에 현장에 연계할 수 있는 실습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아래 표를 통해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1.2 한국 대학 뮤지컬 전공과 연기 전공 음악 교과목

한국은 미국과 달리 콘서트바토리 개념의 학제 보다는 종합 대학 에서 뮤지컬 전공 또는 연기 전공 내에서 뮤지컬 교과목을 시행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다음 다섯 대학(동국대학교, 단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은 연극영화과 순위 상위 학교 중 뮤지컬 음악 교육을 병행하는 곳과 서울 근교 뮤지컬 전공의 학교 중 커리큘럼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곳을 표본 범위로 정한 것이다. 다음 [표 3]을 통해 어떤 교과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유형 A는 연기 전공 내에서 진행되는 뮤지컬 음악 교과목이다. 최근 들어 점차 연극, 뮤지컬, 영화배우, 탤런트의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 방편으로 연기 전공 학과 에서는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음악 교육을 제공

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연기 외에 뮤지컬 분야에도 진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음악 수업은 가창실기 수업 안에서 이론 까지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스스로 연습, 복습을 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표 3. 한국 대학 뮤지컬 관련 전공 음악 교과목

	음악	음악이론	공연실기
A. 동국대학교	뮤지컬가창실기1,4(시창청음 음악이론, 뮤지컬 곡분석) 뮤지컬연기1,2(장면분석)		뮤지컬 성악1,2 (오디션테크닉) 연극, 뮤지컬제작 실기1,4
B. 단국대학교	발성과 화술 1,2, 합창 보이스프로덕션1,3 전통소리 노래-목소리 1,3	시창청음1 뮤지컬개론	공연진행실습1,2, 오디션 뮤지컬제작실습1,3 창작뮤지컬워크숍, 졸업공연,
C. 명지대학교	호흡과 발성 1 합창1,2	시창1 뮤지컬개론1 서구뮤지컬 레퍼토리1,2 연극뮤지컬사1 한국뮤지컬 레퍼토리1,2 뮤지컬입문 1,2	오디션뮤지컬 워크숍1,2 종합뮤지컬제작 실습1,3 뮤지컬프로덕션 기초
D. 중앙대학교	뮤지컬보컬과댄스 뮤지컬보컬과합창 전통소리외무용	음악기초1 시창청음1 연극뮤지컬 기초	연극뮤지컬 제작기초 뮤지컬 레퍼토리실습1,2 창작뮤지컬 워크숍 오디션 쇼케이스
E. 경희대학교	뮤지컬기초노래 뮤지컬노래실습1,2 뮤지컬중급노래1,2 뮤지컬고급노래1,2	뮤지컬음악분석 뮤지컬노래해석 동시대뮤지컬 레퍼토리 고전뮤지컬 레퍼토리1,2	뮤지컬양식실습1,2 뮤지컬오디션 테크닉

두 번째로 유형 B는 한국 뮤지컬 전공 학과의 중 음악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교과목들이다. 기본적으로 음악 이론에서부터 소리 훈련, 졸업 오디션 까지 다양한 교과목들이 구성 되어 있으나 시창청음은 한 학기 내지 두 학기로 마무리 되어 뮤지컬 전공 학과 이지만 해외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교육의 시간이 다소 짧다. 다음으로 국내 창작 뮤지컬이 성공하기 위해선 장기간의 시간과 역량,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3]. 한국 창작 뮤지컬의 소재가 전통 음악에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통 소리 과목의 개설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뮤지컬의 중요한 요소인 노래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인 레슨은 3학

년 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그나마 다른 학교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3학년 때부터 진행된다 해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유형 C는 뮤지컬 전공 학과로 다른 학교에 비해 뮤지컬 역사를 비롯한 많은 뮤지컬 이론 수업을 제공한다. 하지만 커리큘럼 상 음악 기초 이론인 시창청음 과목과 개인 레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번째로 유형 D는 연기전공에서 음악 교과목을 함께 교육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것은 연기전공 학과임에도 음악기초 이론 및 시창 청음이 편성되어있는 것이다. 하지만 뮤지컬 보컬과 댄스 교과목 같이 보컬과 댄스가 함께 되어있어 과목의 분별성이 저하 된다. 유형 B와 같이 뮤지컬 창작 워크숍이나 전통소리와 무용 과목은 제공하는 것은 향후 우리 창작 뮤지컬 발전에 필요한 밑거름이 되는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형 E는 다른 어느 학교보다도 노래, 음악분석, 공연실기, 오디션 까지 다양한 음악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는데 음악 기초인 음악이론이나 시창청음의 수업이 확인 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학교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뮤지컬 전공 학과는 음악 위주의 과목들이 고르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기전공 학과에서 뮤지컬 과목을 혼재하는 곳도 있어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고 사려 된다. 학생들이 자신이 나아갈 분야를 정확히 숙지하고 노력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문성이 있는 학과 커리큘럼을 구축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대학 뮤지컬 관련 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과목들을 알아보자.

표 4. 한국 대학 뮤지컬 관련 학과 주요 음악교과목

	저학년	고학년
음악	시창청음 호흡발성, 가창실기	전통소리, 오디션
음악이론	음악 이론	뮤지컬역사
공연실기	뮤지컬 앙상블	뮤지컬레퍼토리 뮤지컬제작실기

위 다섯 학교는 공통적으로는 저학년에서는 음악 실기와 이론을 위한 기초 과목들, 고학년으로 갈수록 전공 심화 교과목 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한국

도 많은 노력을 통해 이미 유익한 음악 교과목들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과목들을 살펴보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학교의 지역, 또는 종합대학과 콘서바토리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교과목들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필수 과목인 시창, 음악 이론의 경우 아예 없거나 수업이 연속 적으로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한 학기나 두 학기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노래 수업은 전반적으로 개별 수업보다는 단체 노래 수업 위주인 것을 알 수 있다. 표면적으로 뮤지컬 전공 학과를 자칭 하지만 정작 중요한 노래 개인 레슨을 하고 있는 학교는 5개 학교 중 1곳 이었고 그마저도 고학년이 되어야 개인 레슨이 시행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뮤지컬 전공 학과들에서 4년 동안 개인레슨을 필수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감안 할 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음악 수업의 경우 피아노 반주가 아닌 MR 반주를 이용 하는 곳도 있는데 이는 학생들을 악보로부터 멀리 하게 하여 음악 기초를 배우는데 소홀하게 하고 아울러 뮤지컬 음악 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알지 못하게 한다. 음악을 기초부터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대학 뮤지컬 음악 교과목들이 제시하는 연관성들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뮤지컬 곡 분석은 커리큘럼 상 두 곳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학생들이 부르는 곡을 자신의 분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리를 흉내 내고 소리 전달에만 의미를 두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디션 과목은 5개 대학에서 비슷한 교과목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업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앞서 비교한 표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 뮤지컬 교육에서 필요한 교과목들을 되 짚어보고 구체적으로 제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3 한국 뮤지컬 음악 교육에 필요한 교과목 제시

한국 대학 뮤지컬 음악 교육의 시작과 끝은 어떤 학생들을 배출 할 것인지에 대해 각 대학별로 정확한 목

표와 비전에 대해 관 통선을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 뮤지컬 음악 교육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음악의 기초, 음악 실기 와 졸업 까지 책임 질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축해야 한다. 단체 가창 수업이나 공연 제작 실기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각 학교마다 학점이나 교과목 배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교과목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한국 뮤지컬 음악 교육에 필요한 교과목 제시

첫 번째로 음악의 기초인 시창청음, 음악 이론의 과목을 좀 더 연계성 있게 공부 할 수 있도록 한 학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4학기가 불가능하다면 두 학기라도 학생들이 음악 기초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시창과 청음 같은 음악 기초 수업은 음감을 타고나지 않는 이상 한, 두 학기 단체 수업으로 공부해서는 실력을 향상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악보를 읽을 수 없다면 졸업 후 뮤지컬 오디션을 보고 작품에 들어갈 때 혼자서 곡을 공부하기 힘들며 곡의 의도 또한 파악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뮤지컬 음악 교육에서 음악의 기초 교과목들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개인 레슨의 부재 인데 앞서 언급 했듯이 개인 레슨은 대학 에서도 경제적인 면이나 학점 배분, 개인 연습실의 공간 문제로 당장 해결하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는 4년 동안 개인 레슨을 하면서 학생들의 노래 실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객들도 뮤지컬 공연 에서 좋은 음악을 통해 감동 받으며 이것이 곧 연극과 다른 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좋은 배우를 배출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며 한국 뮤지컬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학 교육에서 이루어야 한다. 세 번째로 뮤지컬 곡의 분석인데 학생들이 깊이 있는 배우로 성장하기 위해 필수 요소로 공부해야 할 부

분이다. 기본적인 음악 이론이외에 악보에 있는 객관적인 정보들을 파악 하고 통합하여 나만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소통 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배우는 음악 분석을 통해 다른 배역과의 소통을 할 수 있으며 관객에게 가사의 숨겨진 뜻을 전하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조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다[14]. 곡 분석표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음악 구조, 가사, 캐릭터 및 목표 찾기 등의 섹션으로 항목을 나누어 곡을 발표하기 전에 꼭 분석표를 작성하여 발표 하게 한다. 학생들은 곡 분석표를 통해서 모호하게 감정으로만 부르던 곡을 객관적인 정보의 수집을 통해 복합적 해석의 단계를 유추해 내고 곡을 부르는 정확한 목표를 갖고 인물을 표현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오디션 클래스와 쇼 케이스를 들 수 있는데 이런 양질의 대학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과목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며 어찌 보면 대학에서 제일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미 오디션 테크닉과 쇼케이스 라는 교과목은 이미 존재하지만 수업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장에서 활동하는 뮤지컬 연출가, 음악 감독, 캐스팅 디렉터 등을 초빙하여 그들과의 가상 오디션을 통해 의견을 받고 수정하여 학교에서 미리 경험한 오디션을 통해 현장과의 괴리감을 줄여 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외부의 뮤지컬 관련 인사들과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는 방법 보다는 학교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방식을 채택 하고 있다. 따라서 오디션 테크닉 클래스를 통해서 는 등퇴장을 비롯하여 오디션에 임하는 자세 등 필요한 테크닉을 익히고 자신에게 맞는 레퍼토리를 정하고 연습 하게 한다. 다음으로 쇼 케이스 교과목에서는 뮤지컬 갈라 쇼 같은 형식으로 오프닝, 클로징은 뮤지컬 앙상블을 보여주고 그 사이 개개인이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보일 수 있는 솔로 곡을 준비해서 발표 하도록 한다. 관객의 초빙은 뮤지컬에 관련된 연출가, 기획사, 안무가, 음악 감독, 매니저먼트 등을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다. 쇼 케이스를 공연만 보여주고 끝내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수업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출연자의 인원 수 만큼 이력서를 준비하고 공연이 끝나면 초대 된 뮤지컬 관계자들이 직접 학생들을 캐스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교과목

들로 단순히 대학 교육 후 졸업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졸업 전에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우리나라 문화예술 관련 대학 학과가 정부 통계를 보면 1155개이며 이 중 한 해 신입생이 3만 명이고 졸업생이 2만5000명이다. 이 졸업생들이 자기 분야 일을 할 만한 자리가 찾는다는 것은 쉽다고 할 수 없으며 대학로 140여개 소극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도 10%도 안 된다고 한다[15]. 내수가 안 되기 때문 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방관 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문화 관광부는 2006년 이후 문화예술 교육을 구체적인 사업 단위로 가시화시키기 시작 하였다[16]. 하지만 클래식 음악 전공 학과들이 뮤지컬 전공이나 실용음악 관련 전공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 속에 대중화에 힘입어 더 많은 대학들이 예술 관련 학과를 개설 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이나 여타 예술학과 졸업 후의 실정은 마찬가지로 어려운 실정이며 뮤지컬 또한 많은 대학에서 공급이 팽창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17]. 더욱이 최근에는 매체의 발달과 한류의 영향으로 학생들이 기초 없이 무작정 사회에 나가 경험부터 쌓고 소위 성공이라는 반열에 빠르게 오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질의 커리큘럼 구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뮤지컬 음악 기초 교과목들을 통해 자신의 몸과 소리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고 꾸준한 노래 수업과 음악 분석의 수업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오디션 클래스나 쇼 케이스 같은 실용적인 과목들로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생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교과목 개선을 위해 숙고해 보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 교육을 받은 후 사회에 나가는 것이 깊이 있는 배우로 오래 활동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뮤지컬 음악 교과목간의 연계성을 갖고 확실한 비전과 목표를 제

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넘쳐나는 뮤지컬 인구의 공급 속에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좋은 배우들이 많이 성장하고 배출하게 되면서 그 대학 경쟁력도 높아지리라 사려 된다. 더 나아가 전반적인 우리 뮤지컬 문화 산업의 질적 향상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한혜진, “뮤지컬 문화공연 콘텐츠의 원소스 멀티유즈 활용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추계종합 학술대회, 제4권, 제2호, pp. 180-184, 2003.

[2] 남지영, “학교 뮤지컬 교육 운영 방안 연구”, 음악교육공학, 제14권, pp.16-79, 2012.

[3] 김영아, “브로드웨이 영향과 수용 속에서 성장한 한국 뮤지컬의 향후 과제”, 인문콘텐츠, 제10호, pp.363-382, 2007.

[4] 남지영, “학교 뮤지컬 교육 운영 방안 연구”, 음악교육공학, 제14권, pp.16-79, 2012.

[5] 이장직, *한국 뮤지컬의 현주소와 미래*, 공연과 리뷰, 1995.

[6] <http://www.whatuni.com>

[7] 최미리, *미국과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비교*, 양서원, 2001.

[8] <http://www.education-portal.com>

[9] <http://steinhardt.nyu.edu/music/history>

[10] 박일규, *현대뮤지컬발성법*, 연극과 인간, 2012.

[11] <http://bostonconservatory.edu/history>

[12] 이중만, 오용선, 오영삼, 신준우, “문화콘텐츠분야 대학 교육기관 인력양성 정책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6권, 제2호, pp.10-17, 2008.

[13] 전병준, 윤미정, “홍행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뮤지컬산업의 흥행 전략”, 예술경영연구, 제17집, pp.111-137, 2010.

[14] T. S. Shaffe, “Music as Performance Method: The Score in Experimental Performance,” SAGE Publication, pp.320-325, 2010.

[15] <http://www.fnnew.com>

[16] 김선형,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정책연구”, 인문콘텐츠, 제8호, pp.339-356, 2006.

[17] 조부환, “한국 음악 전공자의 유학 후 실태와 새로운 유학 모델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음악교육공학, 제13권, pp.157-170, 2011.

저 자 소 개

이 은 혜(Eun-Hye Lee)

정희원



- 2000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 음악학과(성악학사)
- 2003년 5월 : 보스턴 콘서바토리 대학원(성악석사)
- 2006년 5월 : 뉴욕대학교 대학원(뮤지컬석사)
- 2009년 3월 ~ 현재 :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교육, 문화 콘텐츠, 공연 예술, 뮤지컬